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2020, Vol. 6, No. 2, 171-188

복합외상 경험이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시간관의 다중매개효과

김 다 현 백 용 매†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학생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복합외상 경험이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시간관의 다중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대구·경북 지역에 소재한 만 18세 이상에서 만 35세 미만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측정도구는 외상 경험 척도, 시간관 척도, 외상 후 정체성 변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외상 경험은 과거부정적 시간관, 현재숙명론적 시간관, 외상 후 정체성 변화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과거긍정적 시간관,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외상 후 정체성 변화는 과거부정적 시간관, 현재숙명론적 시간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과거긍정적 시간관과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복합외상 경험이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과거부정적 시간관, 과거긍정적 시간관, 현재숙명론적 시간관,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다중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현재쾌락적 시간관의 다중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 임상적 시사점을 실존주의에 기반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복합외상 경험, 외상 후 정체성 변화, 시간관, 실존주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백용매 /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 Tel : 053-850-3233 / E-mail : ymbaik@cu.ac.kr

www.kci.go.kr

Heidegger(1927)는 시간은 공간을 열어 자신의 위치를 규정할 수 있게 하며, 시간이 모든 존재 이해의 지평이라고 하였다. 존재는 '나'를 말하며, 심리학에서는 자기로 볼 수 있다. 심리학에서 자기는 Freud의 자아(ego), Jung의 자기(self), Winnicott의 참자기(true self)와 거짓 자기(false self)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장진이, 2010). 또한 Erikson(1968)은 자아와 정체성을 결부시켜 자아정체성(ego-identity)을 제시하였다.

Heidegger(1927)는 현존재(現存在, Dasein)[1]가 자신의 과거로써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자기가 과거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과거는 자기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Herman(1992)은 자기가 변화하는 데 과거의 외상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외상 경험이 자기체계(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자기개념(이아람, 김남재, 2012), 성격적 변화(최현정, 신민섭, 이훈진, 2007)를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외상에 따른 정체성 통합의 부재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체성의 변화는 외상 연구에 있어 중요한데도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에는 외상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체성(identity)이란 자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서전적 기억을 개인이 자신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공시(共時)적으로 구성한 이야기이며, 세계 속에 있는 자신에 대한 통합적인 구성체를 말한다(McAdams, 2001; 최현정, 2014 재인용). 외상(trauma)은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거나, 가까운 사람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거나, 충격적인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후에 나타나는 심리적 곤란이다(APA, 2013). 따라서 외상 후 정체성 변화(traumatized identity)는 기존의 자기에 대한 정보와 달리 일관성과 통합성이 부재한 외상 정보의 침범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기에 대한 변형을 말한다. 정체성 변화의 구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정체성 과잉조절과 정체성 통합결여, 정체성 변화의 내용에 포함되는 정체성 혼란과 부정적 정체성, 정체성 기능문제가 있다. 정체성 과잉조절은 기존 도식을 변화시켜 외상 정보와의 적합성을 최대화하는 조절이고, 정체성 통합결여는 외상 정보를 기존 도식에 적합하도록 변형시키는 동화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 혼란과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부정적 정체성, 자살·자기파괴·물질 중독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정체성 기능문제가 있다(최현정, 2014).

외상은 다양하게 분류되나 대표적으로 단순 외상과 복합외상으로 구분된다. 단순 외상(simple trauma)은 비대인적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경험하는 외상으로 사건·사고, 자연재해,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 경험 등이 있다(장진이, 2010). 복합외상(complex trauma)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장기화된 대인간 외상으로 양육자, 배우자 혹은 다른 책임있는 성인에 의해 학대 및 방임의 형태로 경험된다(Courtois & Ford, 2009; Herman, 1992). 외상으로 인한 장애를 겪지 않더라도 개인이 외상 경험이라고 인식하는 사건이 있다면 현상학적 입장에서 외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복합외상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과 타인, 세상에

1) 현존재(現存在, Dasein)란 존재이해('나는 누구인가')를 포함하는 존재자(자기)의 존재양식(물음)이다(Heidegger, 1927).

www.kci.go.kr

대한 핵심 신념이 변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체성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Janoff-Bulman, 1992). 특히, 외상의 강도가 강할수록 부정적인 정체성 변화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Herman, 1997). 외상 경험자 스스로 외상 상황을 내부 귀인하고 자기 변형을 통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면 부정적인 정체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Herman, 1992: Joseph, Brewin, Yule, & Williams, 1991, 1993).

한편, Erikson(1968)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 개념이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고 하였다. Augustinus(A.D. 401)는 과거, 현재, 미래는 의식(anima) 속에 있는 것이며, 과거는 기억이고, 현재는 직관이며, 미래는 기대라고 하였다.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시간을 척도로 존재를 규정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그들이 공통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개인을 설명해준다는 사실이다. 이에 Heidegger(1927)는 시간이 다양한 존재영역의 분할 척도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즉, 각자 다른 자기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Zimbardo와 Boyd(1999)는 시간관(time perspective: TP)을 시간에 대한 태도로 보았으며, 시간은 시간적 범주, 시간적 틀(순환적이고 반복적인 시간적 패턴 혹은 독특하고 단회적인 연속적인 사건)이자 개인에게 일관성을 제공하고,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경험된 사건을 입력, 저장, 인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대, 목표, 상상력을 형성하는 데 시간관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개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발생한 사건 경험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연속적이고 무의식적인 과정이다.

예컨대, 선행연구에서는 베트남 참전 군인을 대상으로 시간관을 치료하여 치료의 효과를 입증하였다(Zimbardo, Sword & Sword, 2012). 이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있어서 시간관이 제3의 변인임을 시사한다. 특히, 핵심 사건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에게 일관성을 제공하고,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시간관은 그러한 것들에 기여하는 인지 과정이다(Stolarski & Cyniak-Cieciura, 2016). 선행연구에서도 시간관이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sseini Ramaghani, Rezaei, Sepahvandi, Gholamrezaei, & Mirderikvand, 2019). 따라서 아동기 외상이나 복합외상을 비롯한 핵심 사건과 PTSD 증상의 관계를 시간관이 매개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시간관은 과거부정적 시간관, 과거긍정적 시간관, 현재쾌락적 시간관, 현재숙명론적 시간관, 미래지향적 시간관으로 분류된다(Zimbardo & Boyd, 1999). 과거부정적(Past-Negative: PN) 시간관은 과거 사건들에 대해 부정적, 회피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기억이 자서전적 기억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외상 기억에서 자기와 관련된 주제가 자주 등장하였다. 이는 외상 기억이 자기와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시사한다(Berntsen & Rubin, 2007; Holmes, Grey, & Young, 2005). 또한, 외상 기억이 자서전적 기억을 과도하게 지배하거나 자서전적 기억과 통합하지 못하였을 때, 정체성 분열의 문제가 야기된다(Brewin,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거부정적 시간관과 정체성 통합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Van Beek, Berghuis, Kerkhof, & Beekman, 2011). 과거부정적 시간관은 복합외

www.kci.go.kr

상 경험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외상 경험자는 과거부정적 시간관에 편향될 수 있는데, 특히, 아동기에 발생한 외상 경험은 치유 받지 못하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다(Sword, Sword, & Brunskill, 2015). 또한, 복합외상 경험자는 과거 사건을 재연하는 특성이 있으며, 과거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Herman, 1992; Zimbardo & Boyd, 1999). 과거의 외상 경험 순간에 얼어붙어 가만히 서 있다는 인식은 외상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외상 당시 감정의 침습 경험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실과의 단절, 외상 사건 후 일상을 포기한 것, 외상과 관련된 단서를 회피하는 것과 연결된다(Clark, Beck, & Alford, 1999). 선행연구에서는 복합외상 경험이 과거부정적 시간관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검증한 바 있다(허무녕, 2018; 홍솔지, 최윤경, 2014).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복합외상 경험이 과거부정적 시간관을 증가시킴으로써 외상 후 정체성 변화를 유발할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과거긍정적(Past-Positive: PP) 시간관은 과거를 따듯한 경험으로 회상하고, 향수적이며, 감상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다. 개인은 과거 기억들을 떠올려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면서 정체성을 통합한다(Neimeyer & Metzler, 1994; Wong, 1995). 선행연구에서는 과거긍정적 시간관이 높을수록 정체성 통합 수준이 높았으며(Van Beek et al., 2011),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숙, 최윤경, 2014). 과거긍정적 시간관과 외상 후 정체성 변화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드물므로 자기와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과거 긍정적 시간관은 자기존중감, 심리적 만족감, 삶의 만족 및 삶의 의미를 찾는 것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Bohlmeijer, Steunenberg, & Westerhof, 2011; Butler, 1963; Zimbardo & Boyd, 1999). 그러나 복합외상 경험이 과거긍정적 시간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허무녕, 2018; Zimbardo, Sword, & Sword, 2012). 따라서 복합외상 경험이 과거긍정적 시간관을 감소시킴으로써 외상 후 정체성 변화를 유발하는 데 기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쾌락적(Present-Hedonistic: PH) 시간관은 삶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쾌락지향적 태도이다. 적당한 수준의 현재쾌락적 시간관은 자연의 아름다움, 성적 쾌락을 자유롭게 즐기며, 삶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해주나 지나치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감각 추구를 할 경향성이 높다(Zimbardo & Boyd, 1999, 2008). 하지만 능동적인 정체성 탐색은 현재의 의식으로만 이루어지므로 현재에 올바르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복합외상 경험자는 자·타인의 사고, 감정, 욕구와 같은 내적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Bateman, Bolton, & Fonagy, 2013). 즉, 복합외상 경험자가 현재 자신의 내적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정체성을 탐색하고, 형성하고,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현재쾌락적 시간관은 외상 후 성장과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범준, 2014; 한정숙, 최윤경, 2014). 따라서 복합외상 경험이 현재쾌락적 시간관을 감소시킴으로써 외상 후 정체성 변화를 유발할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숙명론적(Present-Fatalistic: PF) 시간관은 미래와 삶에 대해 숙명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

www.kci.go.kr

으로 무력하며, 절망적인 태도와 관련된다(Zimbardo & Boyd, 1999). 보호가 필요한 개인이 무력한 상태에서 복합외상을 경험한 후에 스스로가 통제력이 없다고 인식하게 되면,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통제력 부족은 삶에 있어 전반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확대된다(장진이, 2010; Clark et al., 1999; Dunmore et al., 1997, 1999; Ehlers et al., 1998).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현재숙명론적 시간관이 정체성 통합과 부적 상관을 가지며(Luyckx, Lens, Smits, & Goossens, 2010; Van Beek et al., 2011),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김현승, 2016), 복합외상 경험이 현재숙명론적 시간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허무녕, 2018; 홍솔지, 최윤경, 2014; Zimbardo, Sword, & Sword, 2012). 따라서 복합외상 경험은 현재숙명론적 시간관을 증가시킴으로써 외상 후 정체성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미래지향적(Future: F)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의 목표와 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따르는 태도를 보인다(Zimbardo & Boyd, 1999). 이들은 현재 자신의 행동이 미래에 보상으로 작용하길 기대하며, 더 나은 목표 추구를 위하여 즉각적인 보상을 지연하는 특성이 있다. 이 시간관에 편향되면 과정이 아닌 목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Zimbardo & Boyd, 2008).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자기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복합외상을 겪은 아동들은 학대를 피하고, 자신을 처벌하는 부모에 맞추기 위해 성인의 요구에 과하게 순응하고, 통제하려는 패턴을 보일 수 있다(장진이, 2010). 이러한 패턴이 내면화되면 스스로가 도달할 수 없는 가혹한 기준을 세우고,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의 불일치를 느껴 더 완벽해지려 한다. 따라서 복합외상 경험자는 부정적인 자기개념과 낮은 자기가치감을 형성할 수 있다(Bleiberg, 1984; Harter, 1999). 하지만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이러한 인간의 도구적 특성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인간이 가진 주체성을 전제로 자유와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개인이 목표하는 바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즉,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2]기투(企投, projection)로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정체성 통합과 정적 상관(Luyckx at al., 2010)과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고(한정숙, 최윤경, 2014), 복합외상 경험이 미래지향적 시간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허무녕, 2018; Zimbardo, Sword, & Sword, 2012).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복합외상 경험은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감소시킴으로써 외상 후 정체성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외상 후 나타나는 자기체계 손상, 자기개념의 변화, 성격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저 메커니즘을 정교화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정체성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점과 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체성 통합이나 외상 후 성장은 낮은 과거부정적 시간관과 현재숙명론적 시간관, 높은 과거긍정적 시간관과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를 외상 후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체성 변화를 통해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둘째, 외상 경험 중에서

2) 기투(企投, Projection)란 인간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 스스로를 던짐으로써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Sartre, 1943).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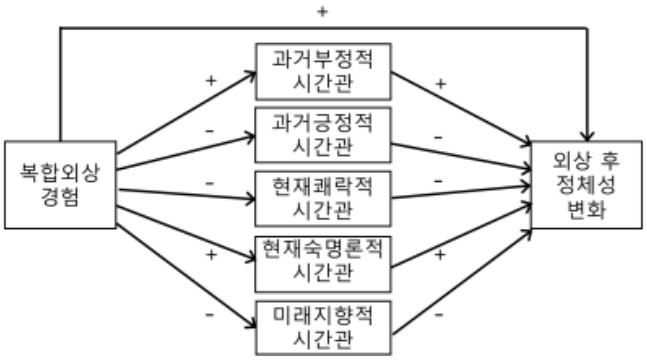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도 복합외상 경험은 외상 후 정체성 변화의 원인이 되는 변인으로 반복 검증되었으나 그 기제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정체성 변화의 주요 기제를 복합외상 경험과 시간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고,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시간관은 복합외상 경험과 외상 후 정체성 변화와의 관계에서 병렬 다중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의 만 18세 이상에서 만 35세 미만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한 33부와 복합외상 경험이 없는 16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5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남성은 113명(37.0%), 여성은 192명(63.0%)이었고, 평균 연령은 21.45세(*SD* = 2.52)였다. 본 연구는 연구 안내서를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본 연구는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CUIRB-2019-0057)을 받아 진행되었다.

측정도구

복합외상 경험

복합외상 경험의 측정은 Van der Kolk(1996)가 개발한 외상 경험 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aire: TAQ)를 고나래(2008)가 한국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TAQ-K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AQ-K의 10가지 외상 요인을 포함한 43문항 중 복합외상으로 적절하다고 알려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가지 요인이 포함된 15문항을 선택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아니다'(0점)에서 '자주 있었다'(3점)에 이르는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복합외상 경험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고나래(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6

www.kci.go.kr

이었다.

시간관

시간관의 측정은 Zimbardo와 Boyd(1999)가 개발한 시간관 척도(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ZTPI)를 윤소정과 김정섭(2012)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형 Zimbardo 시간관 척도(K-ZTP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과거부정적 시간관, 과거긍정적 시간관, 현재쾌락적 시간관, 현재숙명론적 시간관, 미래지향적 시간관 등 5개 하위척도가 있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는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한다. 해당 시간관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시간관에 편향되었거나 지향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시간관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과거부정적 시간관이 .76, 과거긍정적 시간관이 .81, 현재쾌락적 시간관이 .70, 현재숙명론적 시간관이 .72,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74이었다.

외상 후 정체성 변화

외상 후 정체성 변화의 측정은 최현정(2016)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외상 후 정체성 변화 척도(Traumatized Identity Questionnaire: TI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체성 과잉조절, 정체성 통합결여, 정체성 혼란, 부정적 정체성, 정체성 기능문제 등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이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에 이르는 Likert식 7점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최현정(201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6이었다.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인 복합외상 경험과 외상 후 정체성 변화 간의 관계에서 시간관의 병렬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 v3.4(Preacher & Hayes, 2013)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들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셋째, 측정 변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복합외상 경험과 외상 후 정체성 변화 간의 관계에서 시간관의 병렬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복합외상 경험, 외상 후 정체성 변화, 시간관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복합외상 경험과 외상 후 정체성 변화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복합외상 경험과 외상 후 정체성 변화 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고($r = .46$, $p < .001$), 정체성 변화의 하위요인인 정체성 과잉조절($r = .51$, $p < .001$), 정체성 통합결여($r = .43$, $p < .001$), 정체성 혼

www.kci.go.kr

표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계수 (*N*=305)

변인	1	2-1	2-2	2-3	2-4	2-5	3	평균	표준편차
1. 복합외상 경험	1							.35	.31
2. 시간관									
2-1. 과거부정적 시간관	.41***	1						2.80	.82
2-2. 과거긍정적 시간관	-.20***	-.14*	1					3.43	.70
2-3. 현재쾌락적 시간관	.06	.16**	.27***	1				3.42	.59
2-4. 현재숙명론적 시간관	.17**	.46***	-.10	.06	1			3.34	.58
2-5. 미래지향적 시간관	-.20***	-.26***	.20***	.06	-.23***	1		2.42	.56
3. 외상 후 정체성 변화	.46***	.62***	-.32***	-.08	.44***	-.32***	1	2.18	1.09
3-1. 정체성 과잉조절	.51***	.61***	-.31***	-.09	.35***	-.28***	.88***	2.09	1.20
3-2. 정체성 통합결여	.43***	.58***	-.26***	.01	.41***	-.22***	.90***	2.70	1.33
3-3. 정체성 혼란	.37***	.53***	-.29***	-.07	.45***	-.31***	.92***	2.37	1.27
3-4. 부정적 정체성	.35***	.51***	-.28***	-.14*	.40***	-.36***	.90***	1.82	1.11
3-5. 정체성 기능 문제	.42***	.52***	-.29***	-.08	.38***	-.31***	.89***	1.80	1.05

*p<.05, **p<.01, ***p<.001

란(r = .37, p < .001), 부정적 정체성(r = .35, p < .001), 정체성 기능문제(r = .42, p < .001)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다음으로, 복합외상 경험과 시간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복합외상 경험은 과거부정적 시간관(r = .41, p < .001)과 현재숙명론적 시간관(r = .17,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과거긍정적 시간관(r = -.20, p < .001)과 미래지향적 시간관(r = -.20, p < .0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복합외상 경험과 현재쾌락적 시간관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r = .06, p > .05). 일반적으로 상관분석에서 r = .1은 낮은 상관, r = .3은 중간 상관, r = .5는 높은 상관으로 판단할 수 있다(Cohen, 1992). 따라서 복합외상 경험과 외상 후 정체성 변화는 중간 수준의 상관을 나타내었고, 복합외상 경험과 과거부정적 시간관은 중간 이상의 상관을 나타내었고, 복합외상 경험과 과거긍정적 시간관, 현재숙명론적 시간관,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중간 이하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추가적으로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13에서 1.55까지 분포하여, 기준수치인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차한계(tolerance)도 .65에서 .89까지 분포하여 기준수치인 .1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중공선성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

복합외상 경험이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시간관의 다중매개효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각 경로의 개별

www.kci.go.kr

표 2.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N*=305)

단계	예측변인		결과변인	*B*	*β*	*S.E.*	*t*
1	복합외상 경험	→	외상 후 정체성 변화	1.628	.463	.179	9.099***
2	복합외상 경험	→	과거부정적 시간관	1.105	.416	.139	7.957***
	복합외상 경험	→	과거긍정적 시간관	-.461	-.204	.128	-3.619***
	복합외상 경험	→	현재쾌락적 시간관	.123	.064	.111	1.109
	복합외상 경험	→	현재숙명론적 시간관	.329	.174	.107	3.073**
	복합외상 경험	→	미래지향적 시간관	-.373	-.202	.104	-3.593***
3	복합외상 경험	→	외상 후 정체성 변화	.763	.217	.158	4.843***
	과거부정적 시간관	→	외상 후 정체성 변화	.551	.416	.066	8.368***
	과거긍정적 시간관	→	외상 후 정체성 변화	-.229	-.148	.067	-3.417***
	현재쾌락적 시간관	→	외상 후 정체성 변화	-.216	-.119	.077	-2.795**
	현재숙명론적 시간관	→	외상 후 정체성 변화	.339	.183	.084	4.016***
	미래지향적 시간관	→	외상 후 정체성 변화	-.176	-.092	.081	-2.175*

*p<.05, **p<.01, ***p<.001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복합외상 경험을 예측변인으로 외상 후 정체성 변화를 결과변인으로 설정한 후 시간관의 병렬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1단계 분석에서 복합외상 경험이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 463, p < .001). 즉, 복합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외상 후 정체성 변화가 높았다. 2단계 분석에서 복합외상 경험이 시간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과거부정적 시간관(β = .416, p < .001), 과거긍정적 시간관(β = -.204, p < .01), 현재숙명론적 시간관(β = .174, p < .001), 미래지향적 시간관(β = -.202,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쾌락적 시간관(β = .064, p > .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복합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과거부정적 시간관, 현재숙명론적 시간관이 높아지고, 과거긍정적 시간관,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3단계 분석에서 복합외상 경험과 시간관이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과거부정적 시간관(β = .416, p < .001), 과거긍정적 시간관(β = -.148, p < .001), 현재쾌락적 시간관(β = -.119, p < .01), 현재숙명론적 시간관(β = .183, p < .001), 미래지향적 시간관(β = -.092, p < .05)이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매개변인인 시간관을 통제한 상태에서 복합외상 경험이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직접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 .217, p < .001). 이는 복합외상 경험이 높을 수록, 과거부정적 시간관, 현재숙명론적 시간관이 높아지고, 과거긍정적 시간관,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낮아질수록 외상 후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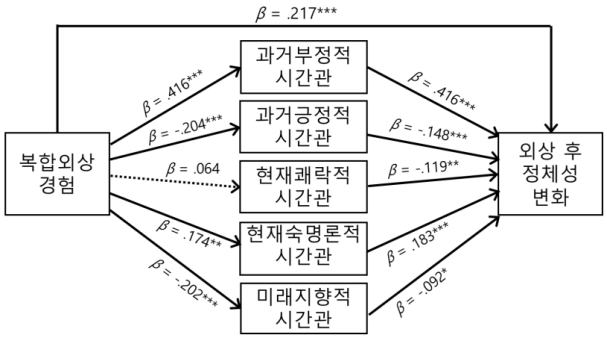
www.kci.go.kr

표 3. 연구 모형의 직접 효과 및 간접 효과와 총 효과 (*N*=305)

	Effect size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복합외상 경험 → 과거부정적 시간관 → 외상 후 정체성 변화	.608	.108	.413	.840
복합외상 경험 → 과거긍정적 시간관 → 외상 후 정체성 변화	.106	.049	.022	.215
복합외상 경험 → 현재쾌락적 시간관 → 외상 후 정체성 변화	-.027	.030	-.095	.024
복합외상 경험 → 현재숙명론적 시간관 → 외상 후 정체성 변화	.112	.051	.027	.227
복합외상 경험 → 미래지향적 시간관 → 외상 후 정체성 변화	.066	.038	.004	.153
Total indirect effect	.865	.139	.607	1.148
복합외상 경험 → 외상 후 정체성 변화	Effect size	*S.E.*	*t*	
Direct effect	.763	.158	4.843***	
Total effect	1.628	.179	9.099***	

*p<.05, **p<.01, ***p<.001

주. LLCL = 95% 신뢰구간 하한한계; ULCI = 95% 신뢰구간 상한한계.



*p<.05, **p<.01, ***p<.001

그림 2.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체성 변화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각 시간관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000개의 부트스트래핑 표본을 생성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였다. 추정치에 대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매개효과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과거부정적 시간관, 과거긍정적 시간관, 현재숙명론적 시간관,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현재쾌락적 시간관의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www.kci.go.kr

는 복합외상 경험이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과거부정적 시간관, 과거긍정적 시간관, 현재숙명론적 시간관,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다중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현재쾌락적 시간관의 다중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35세 미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복합외상 경험이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시간관의 병렬 다중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복합외상 경험은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합외상 경험이 개인의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윤수(201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복합외상 경험과 시간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복합외상경험이 과거부정적 시간관, 현재숙명론적 시간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거긍정적 시간관과 미래지향적 시간관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부정적 시간관이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β = .416). 이러한 결과는 복합외상 경험이 과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에 숙명론적 태도를 갖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과거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거나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갖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특히, 외상 후 정체성 변화 중 과거부정적 시간관의 영향이 큰 것은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관한 치료적 개입 시 과거부정적 시간관의 변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복합외상 경험이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시간관의 병렬 다중매개효과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과거부정적 시간관, 과거긍정적 시간관, 현재숙명론적 시간관,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복합외상 경험과 외상 후 정체성 변화의 관계를 다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외상 경험과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있어 시간관이 미치는 구체적인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외상 경험과 외상 후 정체성 변화의 관계에서 과거부정적 시간관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상 기억이 자서전적 기억을 과도하게 지배하거나 자서전적 기억과 통합하지 못하였을 때 정체성 분열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Brewin(2011)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와 비슷한 맥락의 실증 연구로는 복합외상 경험이 과거부정적 시간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홍솔지와 최윤경(2014)의 선행연구와 과거부정적 시간관과 정체성 통합 간에 부적인 상관이 있다는 Van Beek 등(2011)과 Zimbardo와 Boyd(1999)의 선행연구가 있다. 위의 선행연구에서는 해당 변인 간의 직접적인 영향만 알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존주의 관점에서 보면 외상 경험은 갑작스러운 정보의 침입으로 '반성'을 통해 새로운 [3]대자를 형성하고 기존의 대자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외상 경험자가 견딜 수 없는 좌절을 겪게 되면 기존의 대자와 새로운 대자와의 통합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

3) 즉자(卽自, en soi)는 의식에 대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자(對自, pour soi)는 즉자에 대한 의식으로 자기를 자각하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다(Sartre, 1943).

www.kci.go.kr

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외상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과 새로 나타난 정체성을 통합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좌절을 다루어 주어 과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외상 후에 겪는 정체성 변화를 조절하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복합외상 경험과 외상 후 정체성 변화의 관계에서 과거긍정적 시간관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해당 변인 간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복합외상 경험이 과거에 대한 긍정적 시간관에 부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허무녕, 2018)와 과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간관이 정체성 통합(Van Beek et al., 2011)과 외상 후 성장(한정숙, 최윤경, 2014)에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과거긍정적 시간관이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복합외상을 경험하더라도 과거 시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면 자신의 정체성 분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복합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과거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긍정적 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부정적인 정체성 변화를 조절하고, 나아가 외상 후 정체성 통합에 이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능동적인 정체성 탐색은 현재 의식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쾌락적 시간관은 정체성 통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았다(김범준, 2014). 따라서 현재쾌락적 시간관은 복합외상 경험과 외상 후 정체성 변화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매개변인이 아닌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복합외상 경험이 현재쾌락적 시간관과 유의미한 상관이 보이지 않았고(허무녕, 2018), 현재쾌락적 시간관과 정체성 통합과도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Van Beek et al., 2011)의 결과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복합외상 경험자가 욕망이나 쾌락에 관심이 없거나 외상 경험으로 인해 쾌락적 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경험적 근거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복합외상 경험과 외상 후 정체성 변화의 관계에서 현재숙명론적 시간관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각 변인 간 직접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복합외상 경험이 현재숙명론적 시간관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허무녕, 2018; 홍솔지, 최윤경, 2014)와 현재숙명론적 시간관이 정체성 통합에 부적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다(Luyckx et al., 2010; Van Beek et al., 201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복합외상 경험은 현재숙명론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숙명론적 태도가 정체성 변화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체로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려 무기력함을 느끼고, 주체성이 상실된다. 주체성은 개인이 스스로를 정의 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실존적 삶을 말한다(Sartre, 1946). 그런데 복합외상 경험은 이러한 실존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외상 사건이나 현재의 자신의 상태에 대해 숙명론적 태도를 지닌다면 희망을 지니지

www.kci.go.kr

못하고 정체성 통합에도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복합외상 경험자들에게는 현재에 대한 숙명론적 태도나 시간관보다 전반적인 통제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변화의 동기를 지니도록 하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복합외상 경험과 외상 후 정체성 변화의 관계에서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복합외상 경험이 미래지향적 시간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허무녕, 2018),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정체성 통합과 긍정적인 관계(Luyckx et al., 2010)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를 실존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한 세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초월(transscendant)을 추구함으로써 넘어서(depassement)는 존재이다. 그러나 한 개인이 새로운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 속에 갇혀 있다면 실존적 휴머니즘(humanisme existentialiste)에 위배된다(Sartre, 1946). 따라서 복합외상 경험 후 더 이상 초월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갇혀 있다고 느끼며, 주체성을 상실한 것으로 더 이상 변화된 삶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즉,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지니지 못한다면,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복합외상 경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과거에 매몰된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부정적으로 변화된 정체성의 회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실존주의에서는 시간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거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나를 찾기 위한 반사의 소재이고, 현재는 과거를 반사하여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이며,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타자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존재하도록 선택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복합외상 경험은 과거 시간에 대해 긍정적 시간관보다 부정적 시간관을 지니도록 영향을 미쳤고, 미래지향적 시간관보다 현재숙명론적 시간관을 갖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외상 경험은 외상 후 정체성 변화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복합외상 경험과 외상 후 정체성 변화와의 관계에서 시간관이 매개한다는 사실은 시간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정체성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외상 후 정체성 변화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과거 경험에 부정적으로 매몰되지 않고 현재와 과거 시간, 그리고 미래 시간을 연결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의미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적 개입은 정체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외상 경험, 외상 후 정체성 변화, 시간관을 포함한 각 변인은 횡단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기 때문에 인과성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외상 경험 후 정체성 변화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복합외상 경험이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과거부정적 시간관, 과거긍정적 시간관, 현재숙명론적 시간관,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다중매개효과는 나타났지만, 현재쾌락적 시간관의 다중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관해 반복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일

www.kci.go.kr

반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은 임상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시간관과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상 경험의 유형에 따라 시간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적으로 외상의 유형에 따른 시간관과 정체성 변화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연구에서는 자기실현, 자기개념, 자기효능감, 자기조절과 같이 부분적인 자기를 치료의 목표로 삼아 왔는데, 총체적인 구성개념인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를 하여 임상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실존주의의 시간관 개념을 현대 심리학의 실증연구와 결합하여 외상 경험이 시간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간관이 외상 후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외상 후 정체성 변화의 치료에서 실존주의의 시간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현상학적으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현상에 대해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함으로써 변화의 동기를 갖도록 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치료적 전략을 수립하는 개입방법은 외상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체성 변화를 조절하고, 나아가 정체성 통합을 이루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고나래 (2008). 아동, 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범준 (2014). 시간관과 행복.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1), 49-67.

김현승 (2016). 사건중심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시간관의 조절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윤수 (2017). 복합외상과 정체성 변화: 반추와 외상맥락기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자기체계의 손상으로 본 복합외상증후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283-301.

윤소정, 김정섭 (2012). 한국형 Zimbardo 시간관 척도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6(2), 587-606.

이아람, 김남재 (2012).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27-243.

이정아 (2010). 낙관 지연의 적응모형: 시간지향성과 의지의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진이 (2010). 반복적 대인간 외상 경험자의 자기체계 손상과 심리적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현정 (2014). 복합 외상 후 정체성 변화와 통합 과정: 자기정의기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현정, 신민섭, 이훈진 (2007). 성매매 여성의 해리 경험에 대한 기능적 분석: 사례 연구. 인지행동치료, 7(2), 37-62.

한정숙, 최윤경 (2014). 이혼경험자의 인지적 유연성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www.kci.go.kr

시간관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2), 217-237.

허무녕 (2018).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 경험과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시간관의 다중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솔지, 최윤경 (2014). 대학생의 과거 또래 괴롭힘 경험과 시간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1), 384-38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Augustinus, A. (A.D. 401). *Confessiones*. 박문재 역 (2019). 고백록.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Bateman, A., Bolton, R., & Fonagy, P. (2013).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 mentalizing framework. *Focus*, *11*(2), 178-186.

Berntsen, D., & Rubin, D. C. (2007). When a trauma becomes a key to identity: enhanced integration of trauma memories predict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1*(4), 417-431.

Bleiberg, E. (1984). Narcissistic disorders in children: A developmental approach to diagnosis.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48*(6), 501-517.

Bohlmeijer, E. T., Steunenberg. B., & Westerhof, G. J. (2011). Reminiscentie en geestelijke gezondheid: empirische onderbouwing van interventies. *Tijdschrift Voor Gerontologie en Geriatrie, 45*(1), 7-16.

Brewin, C. R. (2011).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memory disturbance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7, 203-227.

Butler R. N. (1963).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Psychiatry, 26*(1), 65-76.

Clark, D. A., Beck, A. T., & Alford, B. A. (1999). *Scientific foundations of cognitive theory and therapy of depression*.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15

Conway, M. A. (2005). Memory and the self.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3*(4), 594-628.

Courtois, C. A., & Ford, J. D. (Eds.). (2009). *Treating complex traumatic stress disorders: An evidence-based guide*.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Dunmore, E., Clark, D. M. & Ehlers, A. (1999). Cognitive factors involved in the onset and maintenanc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fter physical or sexual assaul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9), 809-829.

Dunmore, E., Clark, D. M., & Ehlers, A. (1997). Cognitive factors in persistent versus recovered posttraumatic disorder after physical or sexual assault: a pilot study.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25*(2), 147-159.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4), 319-345.

Ehlers, A., Clark, D. M., Dunmore, E., Jaycox, L., Meadows, E., & Foa, E. B. (1998). Predicting response to treatment in PTSD: the role of mental defeat and alien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1*(3), 457-471.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www.kci.go.kr

York: Norton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Guilford Press.

Heidegger, M. (1927). *Being and Time*. 전양범 역 (2015). 존재와 시간. 서울: 동서문화사.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377-391.

Herman, J. L. (1997).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New York, NY: Basic Books.

Holmes, E. A., Grey, N., & Young, K. A. D. (2005). Intrusive images and "hotspots" of trauma memories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emotions and cognitive theme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6*(1), 3-17.

Hosseini Ramaghani, N. A., Rezaei, F., Sepahvandi, M. A., Gholamrezaei, S., & Mirderikvand, F. (2019). The mediating role of the metacognition, time perspectives and experiential avoid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10*(1), 1648173.

Janoff-Bulman, R. (1992). *The Shattered Assumptions*. New York, NY: Free Press.

Joseph, S. A., Brewin, C. R., Yule, W., & Williams, R. (1991). Causal attributions and psychiatric symptoms in survivors of the Herald of Free Enterprise disaster.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9*(4), 542-546.

Joseph, S. A., Brewing, C. R., Yule, W., & Williams, R. (1993). Causal attributions and post traumatic stress i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2), 247-253.

Kessler, R. C., Sonnega, A., Bromet, E., Hughes, M., & Nelson, C. B. (1995).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2*(12), 1048-1060.

Loftus, E. F., & Ketcham, K. (1994). *The myth of repressed memory*. New York: St. MartinÕs Press.

Luyckx, K., Lens, W., Smits, I., & Goossens, L. (2010). Time perspective and identity formation: Short-term longitudinal dynamics i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4*(3), 238-247.

McAdams, D. P. (2001). The psychology of life stor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2), 100-122.

Neimeyer, G. J., & Metzler, A. E. (1994). Personal identity and autobiographical recall. *The Remembering self: Construction and accuracy in the self-narrative, 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Rothbaum, B. O., Foa, E. B., Riggs, D. S., Murdock, T. B., & Walsh, W. (1992).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stress disorder in rape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455-475.

Sartre, J. P. (1943). *Being and Nothingness.* 정소정

www.kci.go.kr

역 (2009). 존재와 무. 서울: 동서문화사

Sartre, J. P. (1946). *Existentialism is Humanism.* 박정태 역 (2008).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서울: 이학사

Schacter, D. L. (Ed.). (1997). *Memory distortion: How minds, brains, and societies reconstruct the pas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tolarski, M., & Cyniak-Cieciura, M. (2016). Balanced and less traumatized: Balanced time perspectiv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everity of PTSD syndrome in motor vehicle accident survivor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1*, 456-461

Sword, R. M., Sword, R. K., & Brunskill, S. R. (2015). Time perspective therapy: transforming zimbardo's temporal theoryinto clinical practice. *In Time Perspective Theory; Review, Research and Application* (pp. 481-498). Springer, Cham.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w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Van Beek, W., Berghuis, H., Kerkhof, A., & Beekman, A. (2011). Time perspective,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Zimbardo's time perspective inventory in psychiatry. *Time and Society, 20*(3), 364-374.

Van der Kolk, B. A. (1996). The complexity of adaptation to trauma: *Self-regulation, Stimulus Discrimination, and Characterological Development.*

Wong, P. T. P. (1995). The Precesses of Adaptive Reminiscence. *In Haight, B.* & *Webster, J. In The Art and Science of Reminiscing: Theory, Research, Methods, and Application*, Tayloy & Francis: Washington, DC.

Zimbardo, P. G., & Boyd, J. N. (1999).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differences metr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271-1288.

Zimbardo, P. G., & Boyd, J. N. (2008). *The time paradox: The newpsychology of time that will change your life.* 오정아 역 (2008). 타임패러독스. 서울: 미디어윌.

Zimbardo, P., Sword, R., & Sword, R. (2012). *The time cure: Overcoming PTSD with the new psychology of time perspective therapy.* SanFrancisco, CA: Jossey-Bass

원고접수일 : 2019. 11. 18.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2. 03.
게재결정일 : 2020. 02. 10.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2020, Vol. 6, No. 2, 171-188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Time Perspective in the Influence of Complex Trauma Experiences on Traumatized Identity

Da Hyeon Kim **Yong Mae Baek**

Daegu Catholic University Psychology

This study aimed to to investigate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time perspective on the influence of complex trauma experiences on traumatized identity. A survey was conducted on men and women aged 18 to 35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s and analyze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to verify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The 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and Traumatized Identity Questionnaire were use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mplex trauma experiences were found to be positively related to past negative time perspective, present fatalistic time perspective, traumatized identity, and negatively related to past positive time perspective and future time perspective. Additionally, traumatized identity was found to be positively related to past negative time perspective and present fatalistic time perspective, and negatively related to past positive time perspective and future time perspective. Second, past negative time perspective, past positive time perspective, present fatalistic time perspective, and future time perspective had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complex trauma experiences on traumatized identity, although the present hedonistic time perspective had no multiple mediating effects. The academic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s result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existentialism.

Key words : Complex trauma experience, Traumatized identity, Time perspective, Existentialism

www.kci.go.kr